

'전북자치도 마을기업 희망한마당' 성과공유회

경진원, 시상·기부행사·우수사례 발표·제품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은 28일 전주 바울센터에서 2024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 희망한마당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전북 마을기업 대표 및 관계자,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담당자 및 지역 중간지원기관 등 180여명이 참석하여 지역 공동체 유대감을 강화하였다.

2024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 희망한마당은 마을기업 사업 성과 공유 및 상생·협력 공동체 활동 증대를 통한 도내 마을기업 화합 도모를 위해 개최되었으며, △(1부) 시상, 기부성



과 발표, 마을기업 우수사례 발표, △(2부) 기업 간 교류 및 레크레이션 등으로 구성됐다.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의 영상 축사를 시작으로 경진원 윤여봉 원

장의 개회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의원의 격려사와 (사)전북마을기업협회 김성숙 협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마을기업에게 시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도지사표창은 풍사량(유) 서현정 대표, 웅치마을(영) 최미아 대표, 말갈나눔(영) 서영원 대표 (전북도의회장표창) 곰개나루(협) 김완섭 대표, 꼭두 삼재균 대표, 삼진강다슬기마을(주) 최기술 대표, (경진원장상) (영)하주발효마을 이성희 대표, 부평마을(영) 이훈구 대표가 수상하였다.

또한 남원 웅치마을(영), 순창 하마마을(영) 2개사의 우수사례 발표로 마을기업 성공모델을 전파했고, 14개 시·군 마을기업의 5,000만원 상당 기부성과 발표식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활발히 수행했다.

경진원 윤여봉 원장은 "성과공유회가 마을기업의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북농협은 28일 김장철을 맞아 진안군청 앞 광장에서 '우리 돼지 한돈 소비촉진 시식회'를 개최했다.

우리 돼지 '한돈'의 맛과 우수성

전북농협, 김장철 맞이 한돈 소비촉진 시식회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28일 김장철을 맞아 진안군청 앞 광장에서 '우리 돼지 한돈 소비촉진 시식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식회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창완 전북농협 본부부장, 구경본 대한한돈협회 부회장, 변성섭 농협 진안군지부장, 송제근 무진장축협 조합장을 비롯하여 여러 임직원들이 동참해 한돈 소비촉진에 앞장섰다.

김장철을 맞아 광장을 찾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돈의 다양한

부위를 이용한 구이를 제공하였으며, 소비자가 맛을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 돼지 한돈의 맛과 우수성을 홍보했다.

김영일 본부장은 "소비촉진 행사와 같은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한돈 소비가 활성화되어 양돈농가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김장철을 맞아 김장김치와 한돈의 다양한 요리로 가족간의 정과 건강을 나누는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안전보건공단 전북,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참여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 유명순 본부장은 지난 27일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서로 존중하는 긍정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주관으로 지난 5월 시작했다.

유명순 본부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임선미 지사장의 지목으로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

캠페인을 이어갈 다음 주자로는 대한산업보건협회 강영철 본부장과 (주)휴비스 전주공장 백승덕 공장장을 지목했다.

유명순 본부장은 "아이들이 따뜻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작은 관심이 큰 변화로 이어지듯,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과 긍정양육 문화가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농진청, 고추 재배 기술 다양화해 안정생산 뒷받침

고추 수경재배 농가 점검·기술지원 방안 모색

우리나라 고추 농가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기후변화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으로 2010년 대비 2023년 현재 생산 면적이 40% 줄고, 농가당 재배 면적 또한 소규모화되는 추세이다.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은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기계화 도입에 의한 노동력 부족 해소, 비가림시설 등 시설재배를 통한 안정생산 방안 등이 떠오르고 있다며, 고추 생산량 확보를 위한 관련 기술 개발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환 농촌진흥청장은 28일 충북 진천에 있는 스마트팜 시설을 방문해 고추 수경재배 현황을 살펴봤다. 이 자리에서 환경조절기술을 활용한 노동강도 완화, 병충해 극복, 생산성 향상 효과를 점검했다.

고추는 한 번 재배 때마다 6~8회



수확하고 벼딤대(지주) 설치와 가지를 세우는(유인) 작업이 필요해 노동력이 많이 든다. 2000년대 초반 고추 수경재배가 도입, 활성화되는 듯했으나 경제성이 높은 파프리카 등 고수의 작물에 밀려 마른 고추는 노지와 비가림 재배시설에서 주로 생산 중이다.

진천 농가는 고추 재배에 드는 노동강도를 완화하고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수경재배를 다시 시도하고 있다. 수경재배는 스마트

팜의 바탕이 되는 재배법이다. 환경을 정밀하게 관리함으로써 노지·비가림 대비 수확량이 2.5~7배 많고, 무인 방제로봇, 수확용 작업차 등을 활용해 노지보다 손쉽게 재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농가에서는 최근 2년간 고추 수직 수경재배(TPNC) 시험을 진행했고 내년부터는 규모를 좀 더 확대해 본격적인 수경재배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충북도농업기술원에서는 고추 스마트팜 재배 시험연구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재환 청장은 "현재 병에 강하고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 중이며, 농민축산식품부에서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라며 "스마트팜 고추 수경재배에 현장 적용이 가능한 경제성 분석과 정책을 검토하고 중앙·지방 간 협력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한전 임실지사,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

한국전력공사 임실지사(지사장 김명진, 노조위원장 박종성)는 28일 임실 북부권노인복지관과 함께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활동준비를 돕기 위한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임실지사 사회봉사단이 정성껏 담긴 김장김치는 독거노인 등 운정이 필요한 60여 가구에 전달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김명진 지사장은 "어르신들의 겨울나기를 위한 김치를 마련하는데 힘을 보탬 수 있어서 보람찬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할 수 있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장 재료 마련을 위해 전달된 후원금은 한전 임실지사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조성된 기금인 '러브펀드'를 재원으로 한 것으로 전해져 그 의미를 더했다.

한편 한전 임실지사와 임실북부권노인복지관은 지난 7월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 및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양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